

24년 12월 목회일정

8일(주일)	입교 및 성찬입회식(김성재 이은수)
15일(주일)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22일(주일)	성탄주일
29일(주일)	2024년 임시직분자 임명(4/4분기특별헌금)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9일(월)	결산 및 예산위원회(재정심방보고)
19일(목)	3교회(로템장로 샘터)목회자 모임(본교회당)
25일(수)	성탄절 모임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구제목적(신정민선교사 곡성연화교회 부산장 애인전도협회)
 3.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 오늘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1) 안건 :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심의
2) 참석대상 : 본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인 등록입교인
 4. 성탄주일 / 다음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 목사동정 / 19일(목)11시 3교회(로템장로, 샘터) 목회자 모임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2월	25.01월
교회소식	고충석	고충석
봉 헌	강정희	김낙형
안 내	노주혜	조안나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2.15.(제28-50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사 11:10(교송)
인도자 :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회 중 :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배찬송 ↑ 찬송12장(1-3)

죄의고백

- * 십계명봉독 ↓ 신 5장(주계명/교독)
- * 죄의공적고백 ↑ 제 2형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사찬송 ↑ 시편24편(4-5)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경봉독 ↓ 삼상17:41-54
-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46편
- 설교 ↓ 설교자

전투하는 교회

-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 세례식 ↓ 필요시 시행
-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4장(2a-b) 구제헌금 분봉 분잔
-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15장(1-3)

폐회

-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최성림 목사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24:9-10(교송)		
인도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회 중: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 축복의인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67편(1)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사찬송 ↑	찬송20장(7a-7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요3:16-18,36, 롬10:8-17		
교리문답교독 ↓	소교리86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46편		
설교 ↓	설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2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전투하는 교회)

1. 세상의 안목과 기준을 버리고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2.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실하기를
3.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찬송과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1.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옛사람의 행실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2. 가족의 독일거주를 위한 동반비자 발급이 순전히 이뤄져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3. 총회선교부를 통한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환경이 호전되어 새로운 사역에는 변화가 없도록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목사:고신)

1.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확신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되게
2.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3. 오후예배와 전도사랑방을 통해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자람이 있도록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목사)

1. 전도협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장애인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2. 평소 만나는 장애인들과 복음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 복음 안에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3. 사무실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환경되게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10:3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이야기성경

구 86.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민족

신 55. 드디어 로마에!

주간성경읽기

주일	렘27-29	계 10
월	렘30-31	계 11
화	렘32-33	계 12
수	렘34-36	계 13
목	렘37-39	계 14
금	렘40-42	계 15
토	렘43-45	계 16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왕처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3)

(클라리온(Clarion) vol 71. No 11 / 개혁정론에서)

릭 밴더호스트 목사(Grace Canadian Reformed Church)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인간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더 나은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그 더 나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기적으로 빼앗아가는 왕이 아니라 자비롭게 나누어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세상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명예를 포기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비하심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승천하신 구주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지금도 영적인 은사들을 계속하여 나누어 주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7-12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왕들처럼 사치하면서 살아가기를 꿈꾸기보다 하늘 아버지의 왕되심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왕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안에서 가치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계속)

않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믿음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자신의 직장이나 가족, 재산이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결단코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 이 믿음은 결코 아무런 사고나 생각없이 그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기초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만이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3) 이 믿음은 성경말씀에 기초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떠나 나의 지식으로, 나의 관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구원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 지식이 아무리 나은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견고히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얻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3. “믿음을 자라게 하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하이델베르그7주 22문) 물론 처음부터 이 믿음의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츰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 자라고, 강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일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모든 언약적 약속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이 말씀사역을 통해 믿음의 내용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더욱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개척교회는 사도신경을 토대로 신앙고백문서를 만들어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진리의 가르침 위에 서야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신앙이라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믿음이 강한 것처럼 말할지라도,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교회의 신앙고백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한 믿음의 열매에 의해서 더욱 가시화되어집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15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8장	
성경봉독	삼상 17:41-54	
설 교	전투하는 교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 어떤 무기를 들었는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평가합니다. 골리앗은 지극히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윗을 평가했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먼저, 골리앗은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다윗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의 용모는 전쟁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보기에 다윗의 용모는 왕이 될 재목으로 충분했습니다(삼상 16:12). 골리앗이나 사무엘이나 똑같이 다윗의 외모가 “붉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그 외모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골리앗은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의 안목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다른 군사들과 달리 갑옷을 입지 않은 채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습니다. 방패를 드는 병사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결코 다윗에게 지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보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다윗과 달리 골리앗은 무기도 엄청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모두 들고 있습니다(45절).

골리앗은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우월한 신체조건도 갖추었습니다. 뒤에는 강한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미 실력과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중무장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볼 때에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 들고 나간 무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가지고 나간 무기는 “만군의 야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저 군센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무적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야웨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당대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싸움하러 나갔습니다. ‘무장해제’된 채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에 아무 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갔듯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다윗이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적을 물리치는 무적의 이름입니다.

2. 어떤 무기가 더 강력한가?

골리앗은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겠다고 반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땅”이란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블레셋을 치는 목적이 “온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46절). 다윗의 선언은 실체가 됩니다. 골리앗은 이마에 돌이 박히며 땅에 엎드러 집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고라박습니다. 블레셋 군인들도 ‘가드와 에글론까지’, 곧 블레셋 땅에 엎드러집니다(52절). 골리앗과 블레셋이 땅에 엎드러지며, 온 땅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요.

야웨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주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십니다. 전쟁은 야웨께 속했습니다(47절). 이스라엘 군도 블레셋이나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조건이나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안전함을 보장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분은 만군의 야웨이십니다. 세상과 견주어도 꺾리지 않을 준비를 갖추다고 해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안식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깨부수어 죽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칼로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5). 여자의 후손이자 당대 그리스도였던 다윗은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십자가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무기는 도리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골리앗의 칼에 그의 머리가 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지는 쪽이 종이 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삼상 17:9).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수가 패배하자마자 곧장 도망쳤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약조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약조도 그렇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끝내 그 약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미 머리를 밟힌 사탄과 그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15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540장
성경봉독	요3:16-21,36, 롬10:8-17
설 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은덕’이라고 말합니다.

1. “복음에 계시된 구원”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밝히시고 계십니다(요3:16-1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함을 받은 자보다 택함, 곧 구원에 이르는 자가 항상 작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란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14)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복음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16) 생명있는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든지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있는 믿음입니다.(롬11:24) 원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원가지가 죽지 않는 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속시키며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으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2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예에 의해 자라가고, 또 강화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믿음이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구원 얻는 믿음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단코 변하지